



대한광통신, 의료용 특수광섬유 본격 상용화 기대

▶ 대한광통신의 광섬유 '프로브'를 이용한 KERI-동성 제약 **혜장암** 치료용
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, '2018 출연(연) 10대 우수 연구성과' 선정

<2019-05-02> 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(주)(010170, 대표이사 박하영)이 개발 중인 의료용 특수광섬유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기대되고 있다.

대한광통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기전문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(이하 KERI, 원장 최규하) RSS센터가 개발한 '혜장암 표적치료용 형광복강경 및 광역학 기술'이 '2018년 출연(연) 10대 우수 연구성과'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.

해당 성과는 고출력 LED 광원과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 빛으로 암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표적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암 치료기술이다.

대한광통신의 광섬유 '프로브'는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고출력 LED 광원 및 반도체 레이저를 활용한 '복강경 기반 형광 영상 광역학 치료 기술'에 활용된다. 이 프로브는 동성제약의 광민감제를 인체 내 정맥주사 후, 암(종양)에 선택적으로 약물이 축적되면 종양조직에 특정 파장의 레이저를 조사해 치료하는 광역학치료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. 암을 빛을 이용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치료가 기대되는 차세대 암 치료기술이다.

회사 관계자는 "최근 광민감제를 사용해 혜장암 환자들에게 내시경적 방법(EUS-guided PDT)으로 진행한 포토론 연구자 임상시험(2상)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"며 "이를 기초로 한 '복강경 기반 형광 영상 광역학 치료 기술'은 광역학 치료, 피부과 레이저 치료, 하지정맥류 치료 등 광역학 치료분야에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
향후 '광역학치료'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, 핵심 기술인 '프로브'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 의료용 광섬유인 '프로브'는 광섬유 중 고부가가치 사업군으로, 대한광통신의 기업가치 상승을 견인할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.

☎ 자료문의: 대한광통신(주) 윤권중 팀장 (031-489-5110), 김동훈 차장 (031-489-5113)
(주)IR큐더스 김창훈 매니저 (070-5068-6321), 김물결 책임 (070-5068-6320)